

신동빈 현장경영 재개... 롯데화학 찾아 “ESG 경쟁력 강화”

〈롯데 회장〉

〈환경·사회·지배구조〉

지난달 귀국 후 첫 공식행보 울산 정밀화학공장 둘러봐 고부가소재 투자·관리 당부 “지속가능한 성장 필수 불가결”



신동빈 롯데 회장(왼쪽 세번째)이 지난 18일 오후 롯데정밀화학 울산공장을 방문해 응용실험실 내 메셀로스 제품이 사용된 배기가스 정화용 자동차 세라믹 필터를 살펴보고 있다. /롯데지주

신동빈 회장이 울산 석유화학공단지 내 롯데정밀화학 공장을 방문해 현장 경영을 재개했다. 지난달 귀국 이후 첫 공식 행보다. 롯데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인 친환경 고부가가치 소재 분야에 대한 개발과 투자에 속도를 내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1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18일 롯데정밀화학 울산공장의 현황 등에 대해 보고 받고 생산설비를 직접 둘러봤다. 이 자리에는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BU장, 정경문 롯데정밀화학 대표 등이 동행했다.

롯데정밀화학 울산공장은 전체 부지 약 126만㎡ 규모로, 총 10개 공장에서 에폭시수지원료(ECH), 메셀로스 등 37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롯데정밀화학 제품의 전체 생산량 중 90% 이상이 이곳에서 생산된다.

신 회장이 롯데정밀화학의 생산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는 2016년 삼성그룹의 화학부문을 3조 원에 인수한 바 있다. 이는 국내 화학업계 최대 빅딜이자, 롯데그룹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다. 이를 계기로 롯데는 종합화학사로 거듭나게 됐다.

신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친환경

적인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롯데정밀화학은 그린소재인 셀룰로스 계열 제품에 총 18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1150억원 규모의 건축용 첨가제 메셀로스 공장 증설, 239억원 규모의 식의약품 제품 ‘애니코트’ 공장(인천) 증설이 완료된다. 2022년 상반기에는 370억원 규모의 식의약품 제품 추가 증설도 완료할 계획이다.

롯데정밀화학은 친환경 촉매제인 요소수 브랜드 ‘유록스’의 개발 및 판매도 강화하고 있다. 요소수는 디젤차의 SCR(선택적 촉매 환원) 시스템에 쓰이는 촉매제로 배기가스의 미세먼지 원인 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을 제거해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준다. 유록스는 요소수 시장점유율 약 50%를 유지하는 등 12년 연속 국내 판매 1위(환경부 집계 자료 기준)를 이어오고 있다.

롯데정밀화학은 글로벌 스페셜티 케미칼 전문기업을 목표로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동박·전지박 제조사인 두산솔루션 지분 인수를 위해 사모투자합자회사에 2900억원 출자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생산성을 제고하고 공정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DT(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무선 통신 기반의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원격 제어 및 안전관리가 가능한 사업장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드론, 로봇, AR 글래스, AI(인공지능), 지능형 CCTV 등을 도입해 업무·제어·설비의 자동화를 이를 예정이다.

한편 롯데케미칼, 롯데BP화학도 생산설비 증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화학 3사간 시너지가 기대된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말 울산공장 PIA(고순도이소프탈산) 설비 증설에 500억원을 투자하며 고부가 제품 일류화를 추진하고 있다. PIA는 PET, 도료, 불포화 수지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고부가 제품이다. 롯데케미칼의 PIA 연간 생산량은 52만톤으로 글로벌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케미칼은 PIA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메타자일렌(MeX) 공장에도 1250억원을 투자해 20만톤을 증설, 안정적인 원료 수급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롯데BP화학 또한 1800억원을 투자해 초산과 초산비닐 생산공장을 증설했다.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생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동빈 회장은 19일 석유화학공단지 내 롯데케미칼 및 롯데BP화학 생산설비도 둘러본다. 롯데백화점 울산점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한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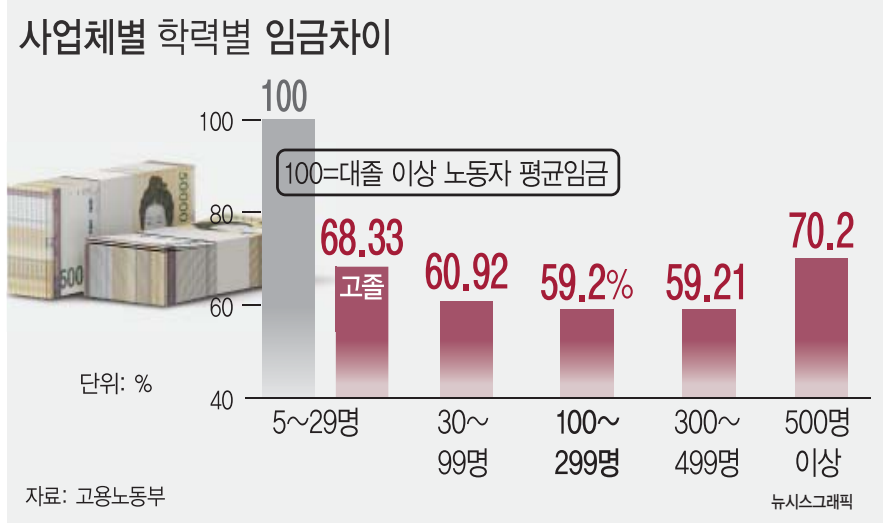
학력별 임금 격차 여전... 中소기업 가장 커

고용부 ‘사업체별 임금분포현황’ 대졸이 고졸보다 최대 41% 더 받아 기업 규모 클수록 임금 차이 작아

대졸 이상 노동자의 평균임금과 비교한 고졸 이하 노동자의 임금차이는 최대 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경력이 쌓이면서 연봉이 더 크게 올랐고,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컸다. 근속 연수별 평균 연봉이 두배가 되는 시점은 대략 10년 이후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9일 기업의 규모, 산업, 직업, 성별, 학력 등에 따른 임금분포현황을 살펴 볼 수 있는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임금분포 현황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중 임금구조부분(3년치)의 원자료 등을 활용해 나온 사업체 특성·



직무특성·인적속성별 임금수준을 도출한 것이다. 2017~2019년까지 3년간 임금 통계를 올해 6월 기준 임금수준으로 변환해 분석한 결과로, 임금 직무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대기업 노동자의 연봉이 중소기업보다 더 크게 올랐고, 경력이 높아

질 수록 연봉 차이는 더 벌어졌다.

공개된 임금 분포 현황에 따르면, 5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에 학력은 대졸 이상, 근속 연수는 1년 미만인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3347만원이다. 같은 조건에 근속 연수가 10년 이상인 사람의 평균 연봉은

8651만원으로 2.58배 올랐다. 반면, 30~99인 중소기업의 같은 조건에서는 1년 미만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3018만원, 근속 연수가 10년 이상 노동자 평균 연봉은 6413만원으로 2.12배 오르는데 그쳤다. 1년 미만 경력에서 평균 연봉이 차이가 있는만큼, 10년 이상 경력 평균 연봉 차이는 더 크게 벌어졌다. 1년 미만 경력에서 300만원 차이였으나, 10년 이상에서는 2200만원 수준으로 격차가 커졌다.

대졸 이상 노동자의 평균 임금에 대한 고졸 이하 노동자 임금 비율은 500인 이상 사업체(70.2%)에서 가장 컸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학력에 따른 임금 차이가 작은 셈이다. 대졸 이상에 대한 고졸 이하의 임금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100~299인 사업체(59.2%)였다.

대졸 이상에 대한 고졸 이하의 임금 비율을 직업별로 보면 단순 노무 종사자(87.3%)가 가장 높았고 판매 종사자(64.2%)가 가장 낮았다. 이번 임금 분포 현황이 공개됨에 따라 업종별 유사 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폰으로 카드 결제하고 은행 앱으로 실명확인

앞으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 등으로 은행원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이 없더라도 은행 앱 확인을 통해 금융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카드단말기 없이도 스마트폰에 결제용 모바일 앱만 설치하면 국내·외 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위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20건이다.

금융위는 우선 신한은행의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실명확인 서비스’를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은행원이 고객을 방문할 경우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 앱 로그인을 통한 본인인증으로 실제명의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신분증 원본을 확인해야만 금융거래가 가능했다. 금융위는 영업용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가 확대되고 금융소외 계층 및 접근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간편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 절차도 간소화된다.페이허어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시 앱에 증빙자료만 업로드하면 가입절차가 진행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에이엔비코리아는 모바일 앱을 통해 카드단말기 없이도 가맹점이 국내·외 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나유리 기자 yul115@

제약·바이오 취업생 꿈의 기업은 ‘셀트리온’

잡코리아 취업생 874명 대상 설문 삼바) 녹십자) 광동제약 順 뒤이어

제약·바이오 회사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제약·바이오사는 ‘셀트리온’이었다.

잡코리아가 제약·바이오 회사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874명을 대상으로 ‘제약·바이오 회사 취업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제약·바이오 회사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이 꼽은 ‘가장 취업하고 싶은 제약·바이오 회사’ 1위는 ‘셀트리온(21.1%)’이었다.

다음으로 2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16.4%)’가 차지했고, ‘녹십자(15.7%)’와 ‘광동제약(15.4%)’은 근소한 차이로 3, 4위에 올랐다. 이 외에는 ▲유한양행(10.5%) ▲종근당(9.3%) ▲SK바이오팜(7.2%) ▲한미약품(5.3%) ▲대웅제약(4.9%) ▲삼성제약(4.3%)순으로 취업하고 싶은 제약·바이오사로 꼽혔다(*복수응답).

취업하고 싶은 제약·바이오 회사 순위는 취업생들의 전공계열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먼저 경상계열 전공자(1위 셀트리온-23.4%)와 이공계열 전

공자(1위 셀트리온-24.0%)등 대다수 전공 그룹에서 취업 선호 1위 기업으로 셀트리온을 꼽았다. 반면, 인문계열 전공자들은 취업 선호 회사 1위에 ‘녹십자(19.0%)’를 꼽아 차이를 보였다. 인문계열 전공자들이 뽑은 취업하고 싶은 제약·바이오 회사 TOP3는 ▲녹십자(19.0%) ▲광동제약(16.9%) ▲셀트리온(16.4%)이었다.

제약·바이오사 취업생들이 취업선호 기업 선택 시 가장 영향을 받은 요인은 ‘연봉’이었다. 잡코리아가 이들 취업준비생들에게 선택한 제약·바이오사에 취업하고 싶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연봉이 높을 것 같아서(31.5%)’란 답변이 1위에 오른 것. 다음으로 ▲직원 복지제



셀트리온 1공장 전경.

도가 좋을 것 같아서(28.3%) ▲평소 기업 이미지가 좋아서(28.0%) ▲가장 성장성 있는 기업으로 보여서(17.2%) 등도 취업선호기업 선정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이었다(*복수응답). /이현진 기자 hj@